

옛 사랑의 틀을 깨고 참 사랑의 새 틀로

-복음으로 여는 아가사-

아가서1:1-7, 요한일서4:10-21

정윤돈 목사님

“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강단메시지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떨어지는 이 말씀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현될 수 있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와 램넛트들, 한국 교회와 교단이 일어나서 세계교회를 회복시키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솔로몬을 통해 기록된 아가서를 중심으로 ‘옛 사랑의 틀을 깨고 참 사랑의 새 틀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아가서는 그냥 읽으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책이다. 또한 성경 같지 않다. 그러나 결모습과는 달리 아가서는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그 증거로 유대인들이 유월절마다 낭독했던 성경이 바로 아가서였다.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는 최고의 명절이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이 지키고 행한 절기 같은 것들을 보면 복음적인 것을 느끼게 되었다. 많은 율법이 있는데 유월절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지금 보면 성경 같지 않은 연에서, 유행가 가사 같은 아가서를 읽었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가서를 그냥 읽으면 솔로몬이 기록한 남녀 간의 진한 사랑에 대한 오케라, 희곡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아가서를 기록한 진짜 이유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 이름대로 최고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다. 아가서는 원어에 보면 ‘노래 중 노래’ 반복해서 나온다. 보통 두 가지 단어를 연속해서 말했을 때 최상급으로 이야기를 한다. 어떤 교수님이 진실하게 이야기하셨다. ‘당신은 아가서보다는 성춘향전이 더 공감이 된다.’ 언어나 문화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읽었던 분들은 그 정서에 잘 맞았을 것이다. 이 언어가 정말 사랑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되겠지만 몇 천 년이 흐른 우리에게 사용된 단어도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노래인 ‘열애중’이라는 가사를 들려드리겠다. 자신은 이별했는데 아직도 사랑하고 있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그 상대 남자는 잘 잊은 것이다. 그래서 ‘아직 이별 중인 나에게 끝이 아닌 것만 같아서 다른 사랑 중인 너지만 나는 아직 너와 열애 중’ 마음이 아프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상처도 준 사람도 더러 있을 것이다. ‘나도 너 만큼만 헤어지고 싶어.’ 헤어지고 싶는데 아직 미련이 있는 것이다. ‘아니 너보다 행복해지고 싶어. 너는 어떻게 날 잊었는지 가르쳐 줘. 아직 이별 중인 나에게 난 나 아직 이별 중’ 가사가 참 좋다. 그래서 가사를 한 번 바꿔봤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누구야. 너는 어떻게 나를 잊고 사는지 내게 가르쳐 주렴.’ 예수님이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는 것이다.(웃음) 주님의 짝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버티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란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애인 사랑하듯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듯이, 놀러가고 싶은 그 좋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시대적인 인물도 될 것이다. 차이점이 그것이다. 전국에서 매달,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다. 연애도 그렇게 하기 어렵다. WRC 몇 십만 원 들어서 참여한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대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안 주시는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실 줄 믿는다. 그 안에 다 있다. 그래서 거룩하고 재미없지 않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정말로 참된 연애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참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공부도 잘되고 전문성도 가질 수 있고 모든 문이 열린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 다른 것을 놓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답답한 것이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왕을 사랑한 어린 소녀 솔람미 여인은 왕을 돌보며 노동하는 친한 소녀였지만 솔로몬왕의 열정적인 구애로 왕의 신부가 되었다. 그 여인의 모습이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표현되어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 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아름답다고 말한다. 햇빛을 쬐어서 검은지라도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

이라’ 왜 새카맣게 되었는가. 형제 오빠들이 있는데 너무 착해서 농장 일을 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이 착하여 오빠들의 포도원 관리를 하느라 자기의 포도원을 관리 못하는 것이다. 이 여인이 새카맣지만 아름다운 것을 솔로몬 왕은 안 것이다. 나중에 씻기고 입히고 나니, 모든 외모가 다 예쁜 것이다. 노동자로 있을 때는 미모를 가리고 있어 빛이 안 나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60명의 장정이 이끄는 금가마를 타고 신부로 맞이한다. 그런데 솔람미 여인이 믿지 않고 계속 도망가고 한다. 만나고 싸우고 헤어지는 갈등의 그런 과정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의 연애 과정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 있다. 아가서가 8장으로 되어있지만 어떤 목사님은 25년 동안 아가서만 설교하셨다. 그 이유가 있다. 아가서의 내용은 결모습은 솔로몬과 솔람미 여인의 이성간 사랑이었지만,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모두 정략결혼이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왕의 족속도 아니었으며, 노동자인 친한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솔람미 여인이었다. 그 솔람미 여인이 바로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나 자신을 상징한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기를 바란다. 2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복음이 아닌 율법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을 뜻한다. ‘내가 노루와 들시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혼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이 말은 쉽게 이해가 된다. 내게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학교에 가야해서 깨우야 하는데 깨우더라도 ‘더 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 이성간에도 그럴 것이다. 사랑하니까 자는 모습도 예쁘고 방해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이다. 어려운 내용은 ‘노루와 들시슴을 두고 부탁한다.’ 이것이다. 노루와 들시슴은 굉장히 예민하다. 그래서 약간만 소리가 나면 도망간다. 율법적인 사람, 예루살렘 여자들은 ‘일어나! 뭘해! 교회 가자!’ 한다. 그런데 복음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는 ‘피곤하지. 천천히 가도 돼.’ 조심히 이야기한다. 이것을 복음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탁의 말하는 것을 상징한다. 또한 노루와 들시슴의 발은 갈라져있다. 레위기에 보면 더러운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있다. 이것을 보면 율법과 복음적인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굽이 갈라져있다. 이것은 정결한 짐승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짐승을 상징한다. 돼지는 왜 깨끗한 짐승이 아닌가. 돼새김질을 안 한다. 그러나 노루와 들시슴은 돼새김질한다. 복음은 자꾸 반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가 될 때까지 듣고 또 들었을 때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노루와 들시슴으로 부탁한다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이 꼭 차이는 것이 아가서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솔람미 여인과 같이 다른 사랑, 틀린 사랑, 섞인 사랑, 망할 사랑을 쫓아간다. 잘못된 옛 틀의 사랑이다.

1. 사람들의 잘못된 옛 틀의 사랑을 버려야겠다.

- (1) 나 중심, 돈 중심,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마귀를 의지한다. 무속, 점술, 우상에 의지한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은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 된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자녀, 후대들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다 당해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에서 끊기를 바란다. 끌려가지 말아라. 결단내고 새로 시작해라. 그 저주, 재앙, 영적문제의 바톤을 이어받지 말아라. 그 방법이 오직 예수이다. 세상에 미련두지 말아라. 그러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복음 떠난 가정에서 자란 램넛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끊어야 한다.
- (2) 잘못된 사랑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을 주셨다. 가정, 자녀, 돈을 다 주셨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집히면 안 된다. 켤도 뒤집으면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은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신다.
- (3)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옛 사랑의 틀을 깨지 못한 성도들이다. 오늘은 어린이날, 아버지날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목숨과 같이 사랑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굉장히 고통당한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잘될 줄을 믿기를 바란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여러분이 주님만 사랑하면 다 풀어준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무 신경 써서 자녀들

이 땅하지 않았는가. 가만히 두고 기도만 해라.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다 해결된다. 그것이 복음적 방법이다.

(4) 주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다. 내가 목숨 걸 가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울증 걸리겠는가. 내가 목숨 걸 일이 있는데 당연히 행복하다.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내가 목숨을 걸 현장을 찾아야 한다. 나는 꿈이 많은 것 같았지만 꿈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현장에 와서 알았다. 신학교 다닐 때도 큰 교회, 훌륭한 목사에 만족하고 재미있었다. 그런데 복음운동을 하면서 꿈이 생겼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꿈이구나. 전 세계에 RUTC를 세워야 되겠구나.' 급하지 않고 조금씩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류목사님께 주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의 RUTC이다. 나의 RUTC이다. 남의 꿈, 남의 비전이 아니다. 세계복음화전도협회의 꿈이 아니다. 바로 여러분의 꿈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한다. 생명 걸 수 있어야 한다.

(5) 솔람미 여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가서 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솔람미 여자가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 하나님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솔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교회를 떠나는가. 연약하고 진리,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을 짝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설 줄을 믿는다. 목사님들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 20년 동안 교회가 크게 부흥되지 않고 어렵고 힘든데 이 복음의 대열에 계신다. 본인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줄 믿기를 바란다. 앞이 보이지도 않는다. 기초가 없으면 롯데타워 같은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사랑했던 많은 전도사,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사랑하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램프들은 세계복음화 할, 최첨단 빌딩으로 올라갈 줄 믿는다. 그것이 서밋이다.

2. 참 사랑의 새 틀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아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묵상하면서 찾아보고 물어보기를 바란다.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틀린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을 해야겠다.

(1) 우리를 향한 참사랑이란 예수님의 사랑만이 참사랑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최근에 '방탄소년단(BTS)'이라는 남자 아이돌 그룹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 팬들을 '아미'라고 한다. 그 팬들의 사랑이 대단하다. 텐트치고 기다리기도 하고 뉴스에서 보니까 줄을 미리 서있다. 뉴스에서 앵커가 이렇게 긴 줄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이다. 앞으로 WRC에서 텐트치고 일주일동안 티켓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겠는가.(웃음) 아마 많이 나올 것 같다. 이 분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그 팬들이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 텐트 치는 것보다 몇백 년, 평생을 기다리셨다. '돌아오라.' 말씀하셨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만 배 더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버려라. 그리고 주께 맡기라. 그 정도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 조잡한 사랑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오히려 방해받는다. 예수님은 젊은이들이 애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체험하기를 바란다.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적인 사랑의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고 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가서 8절 6절-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사랑의 성격이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연인들이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말은 참 좋은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다. 짐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짐착하면 피곤하지 않겠는가.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목숨 걸고 죽으시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도망가면 예수님이 쫓아가신다. 다 빼앗아가고 고생한다. 여러분이 세상 것,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신다.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 하며' 스올은 지옥을 의미한다. 질투는 잔인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보다 잔인한 분을 보지 못했다. '저 정도면 봐주시지. 얼마나 힘든데 또 어려움 주시고 빼앗아 가시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했는데 질투였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날부터 모든 응답들이 쏟아진다. 걱정되고 두려워서 다 빼앗길까봐 그렇게 못하지 않은가. 아니다. 하나님이 천만 배로 회복시켜주신다. 당장 응답 주신다.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 아가서 8장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남자들이 눈 돌아가서 빛내서 여자들 사귀지 말아라. 그런데 그게 사랑이다. 돈, 시간이 없다는 것도 말 안되더라. 후배는 매주 부산에 가서 애인 만났다. 시간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가. 돈이 없어서 헌금하지 못하는가. 아니다. 도박 사랑해서 일주일 내내 벌어서 도박한다. 사랑하고 좋아하니깐. 여러분은 그 이상이 되기를 바란다.

(2) 참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사랑이 참사랑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3) 참사랑이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결단을 못 내려서 행복도 없고, 살 가치도 없고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다. 이 결단, 체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사랑과 CVDIP를 적용해 보겠다.

1. 참사랑과 언약이다. 인류역사상 최고의 참사랑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이며, 이사야 7장 14절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

2. 참사랑과 비전이다. 우리들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증거 하는 것이다.

3. 참사랑과 꿈이다. 우리들의 최우선적인 꿈이 되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술, 도박을 좋아하는 것처럼, 스포츠, 중독을 좋아하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역사적인 인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루터, 어거스틴, 전도사 류광수 목사님이다.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 중직자임을 믿는다. 여러분이 최고의 선두에 서기를 축원한다.

4. 이미지와 참사랑이다. 참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되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옛 사랑, 거짓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 이제 그리스도의 참사랑으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5. 참사랑과 실천이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램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란다. 우리는 공동육아 해야 한다. 내 자녀보다 사랑하면 된다.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축복해 주고, 눈빛도 따사롭게 하면 된다. 조금 잘못하고 떠들었을 때도 뭐라고 하지 말고 귀엽게 봐주고 기도해주면 된다. 그러한 실천이 있기를 축원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을 통해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것이 어린이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항상 누리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777현장, 5시대를 살리고 무너지고 있는 가정과 세계 교회를 회복시키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그리하여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